

Morning Meeting Brief

Daishin's View

[Daishin's View] 2026년 6월 1주차

- **금리:** 금리의 변동성 확대 여지 있으나, 절대 금리의 매력도 ↑ **환율:** 지정학 불확실성 및 외국인 매도에 상승, 종전되면 강제 재개
- **국내 증시:** KOSPI Target 8,800p 유지, 매물 소화를 거치며 사상 최고치 **글로벌 증시:** 안도(상반월)와 경계(하반월) 사이
- **원자재:** 해협 개방 되더라도 계절성으로 하락 제한 **부동산:** 주택 세제 강화로 조정 가능성 有, 상업용 금리 부담에 지연/감소 전망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Strategy

[2H & 6월 증시 전망 및 투자전략] Q&A로 풀어 본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 화려한 피날레(Finale), 변곡점은 8월말 ~ 9월초

- 26년 하반기도 실적, 경기 모멘텀 유효. 종전 협상 타결시 상승 탄력 강화
- 6월 단기 과열해소, 매물소화 국면 대비. 단기 조정 이후 탄력적인 상승 예상
- 8월말 ~9월초까지 주도주 비중 유지/확대. 이후 원유, 천연가스 ETF 주목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퀀틴전시 플랜] 2차 간부 회동 기대감이 불 지핀 AI 밸리, 주도주 쏠림 지속

- 코스피 내 쏠림 현상 지속, 사상 최고치 경신하며 8,500선 근접
- 2차 간부 회동 기대감에 피지컬 AI, 소프트웨어 급등
- 주도주 밸리에 코스닥 소외, 업종 전반적으로 약세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Issue Comment] 현대해상: 도수치료 제한, 가장 큰 수혜

-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포함되면서 위험손해를 1.5%p하락 가능할 전망
-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제한 관련 업계 전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재료
- 실적발표 이후 상승분을 거의 반납한 주가, 모멘텀 존재하여 주목할 필요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Issue Comment] LS: 실적 성장 본격화 & 주가 급락은 저가 매수 기회

- 투자이견 매수, 목표주가 630,000원 유지. 최근 주가 급락은 과도
- LS ELECTRIC의 높은 밸류에이션 정당화: 미국 FPS 사례로 확인 가능
- LS전선 기업가치 재평가: 고마진 전력케이블/부스웨이 매출 성장

허민호, minho.hur@daishin.com

[대신증권 신성장산업] 6월 Top-Picks: 브이엠, 하이록코리아, 인텔리안테크

- [브이엠] 실적은 역대 최고, 주가는 여전히 저렴한 구간
- [하이록코리아] 재편되는 에너지 지도에서 기대되는 수혜주
- [인텔리안테크] 스페이스X 다음 투자 포인트는 지상국과 안테나

박장욱, 한송협, 김아영, 김진형

2026년 6월 1주차

[금리] 국고 3년 3.50~3.85%

금리의 추가 변동성 확대 여지 있으나, 그만큼 절대 금리의 매력도 높아진다
한국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 가시화로 금리의 변동성 확대 및 분출 가능성 높
아. 다만 단기간에 금리 레벨이 큰 폭으로 상승한데 따른 되돌림 과정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 미국은 고유가에 따른 물가 우려, 기대 인플레이 상승 부담이 장기물 중심
으로 크게 반영되고 있음. 연준 내부의 매파적인 기조 확산도 부담 요인이나 금리
급등에 따른 되돌림 시도 가능

[환율] 달러원 환율 1,400~1,520원

지정학 불확실성 및 외국인 주식 매도에 상승, 그러나 종전 확정되면 강제 재개
달러-원은 5월 지정학 불확실성 및 글로벌 금리 상승, 외국인들의 국내주식 순매도
등이 겹치며 1,500원 내외로 반등했으나, 3월 대비 상단은 제한. 원화 방향을 좌우하
는 최대 변수는 여전히 중동 정세. 미-이란 종전 확정 시 환율 하향 안정 유력하며
하반기 한-미 간 정책금리차 축소도 원화 가치 안정 요인

[국내 증시] KOSPI 7,000~8,800p

KOSPI Target 8,800p 유지. 단기 과열 해소, 매물 소화를 거치며 사상 최고치 행진
26년 KOSPI Target 8,800p 유지. 선행 PER 8.7배(26년 평균) 수준, 실적 전망, 선행
EPS 상향조정 지속. 2Q 프리 어닝 시즌 중 추가적인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시 Target
상향 조정 가능. 과도한 반도체로 쏠림 이후 순환매 전개 가능성. 반도체 단기 과열
해소, 매물 소화 국면은 비중확대 기회. 당분간 조선, 자동차 등 수출주와 2차전자,
인터넷 등 성장주 트레이딩 유효

[글로벌 증시] S&P500 7,000 ~ 8,400p

6월 글로벌 증시, 안도(상반월)와 경계(하반월) 사이. 시간에 투자해야 하는 국면
이란 전쟁 종전 가시화(빠르면 5월 말, 늦어져도 6월 첫째 주), 상반월 위험자산 선호
심리 지속. 다만 종전 후에도 시차를 둔 물가 상승 불가피. 주요국 중앙은행 금리 인
상 및 금리 인상 필요성 요구하는 중앙은행 내 소수의견 대두. 하반기, 증시의 상승
세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원자재] WTI 80~105\$/bbl.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 ↑ 개방 되더라도 계절성이 제한할 유가 하락 속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 ↑ 급하지 않다는 트럼프 대통령 + 미국과 이란간 간헐
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충돌. 다만, 양측 모두 합의 위한 방향은 불변. 3/4분기 유가
진정 가능성 여전. 다만, 개방 되더라도 하락 속도는 완만할 것. 4~9월은 중동 산유
국들의 냉방 시즌, 전력원의 40% 이상은 석유, 자국 내 수급 안정 위해 석유 수출 통
제. \$70 후반까지 완만한 속도 예상

[부동산] 주택 : 보험, 상업 : 보험

주택은 세제 강화로 추가 조정 가능성 有, 상업용 금리 부담에 거래 지연/감소 전망
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조정은 마무리 국면. 1주택자 세제 변화 수준에 따라 고
가 시장 추가 조정 가능. 다만, 전세가를 높은 중저가 지역의 수요 드리브 상승 지속.
상업: 시장 금리 상승과 오피스 임대 시장 둔화로 투자 매력도 감소, 물류 섹터는 신
규 공급 가뭄으로 우량 자산 중심으로 임대/투자 시장 회복 나타날 것.

Q&A로 풀어 본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 화려한 피날레(Finale), 변곡점은 8월말 ~ 9월초

- 26년 하반기도 실적, 경기 모멘텀 유효, 종전 협상 타결시 상승 탄력 강화
- 6월 단기 과열해소, 매물소화 국면 대비, 단기 조정 이후 탄력적인 상승 예상
- 8월말 ~ 9월초까지 주도주 비중 유지/확대, 이후 원유, 천연가스 ETF 주목

26년 하반기도 실적, 경기 모멘텀 유효, 종전 협상 타결시 상승 탄력 강화

26년 하반기에도 실적, 경기 모멘텀에 근거한 상승추세 유효 글로벌 경기는 제조업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증시와 경제는 반도체 주도의 차별적인 모멘텀, 강화 전개, 한국 GDP 성장률은 2.8%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 높고, 이익 모멘텀 또한 27년까지 견고할 것으로 예상. **미국, 이란 종전 협상 타결시 3분기 유가 안정, 채권금리, 달러화 하향안정에 힘입어 KOSPI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상승 탄력 강화 예상**

하반기 유가, 물가, 통화정책 변화 체크, 경기회복에 근거한 유가 및 물가 상승 압력 확대 예상. 4분기 수요 회복, 공급 불확실성 확대 시 유가 레벨업도 가세할 수 있는 상황. Non-US 금리인상 사이클 재개와 함께 미국까지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 예상. 26년 하반기까지는 실적 경기 모멘텀이 물가, 금리인상 압박을 버텨낼 수 있을 것. 하지만, 물가 레벨과 누적된 금리인상 여파로 27년 실적, 경기 불확실성 확대 불가피

6월 단기 과열해소, 매물소화 국면 대비, 단기 조정 이후 탄력적인 상승 예상

6월 KOSPI는 초반 반도체 급등에 의한 추가 상승은 기대하지만, 단기 과열해소, 매물소화 국면 대비. 1) 단기 상승 피로 누적 속에 2) Risk Off 시그널 전환, 변동성 확대 경계. 3) 사상 최고치 행진의 중심에 자리한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방산, 에너지, 화학 등 단기 과열 부담 및 상승 피로 누적. 단기 변동성 확대시 중요 지지선은 7,000 ~ 7,300선(PBR 기준 올해 평균의 +1표준편차 수준, 선행 PER 7배) 전후

단기 조정 이후 3분기 KOSPI 탄력적인 상승 예상. 1) 2분기 프리어닝 시즌과 함께 반도체 주도의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재개, KOSPI 상승 여력 확대, 상승 탄력 강화, 2)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휴전 협정 이후 유가, 채권금리, 달러화 안정. 4) 금융투자수급 주도력에 외국인 매도 완화, 매수 전환 가능성 확대 현재 KOSPI 타겟은 8,800p. 하지만, 이후에도 **26년 순이익, 12개월 선행 EPS 상승으로 상승 여력 확대.** 2분기 프리어닝 시즌과 함께 타겟 상향 조정 가능성 높음

KOSPI 실적 레벨업,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Peak Out, 업황 정점 통과 우려는 과도하다는 판단. 반도체 이익 모멘텀과 주가 고점 간의 시차 존재. 오히려 반도체 가격 변화율보다 낮은 실적 수준. **한국, 반도체 수출 일평균 금액 사상 최대치 경신을 통해 실적 전망 추가 상향 조정 가능성 높다고 판단**

8월말 ~ 9월초까지 주도주 비중 유지/확대, 이후 원유, 천연가스 ETF 주목

8월말 ~ 9월초를 기점으로 KOSPI는 화려한 피날레(Finale)를 통과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 1) 선행 EPS 전년대비 변화율 정점 통과 여부 확인, 기저효과 소멸, 2) 잭스홀 미팅과 9월 FOMC를 통해 케빈 워시의 대차대조표 축소, 연준의 27년 금리인상 사이클 현실화 여부 판단. 3) 유가 상승 재개로 인한 나비효과 경계 물가 반등,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에 따른 채권금리 반등, 달러 강세 반전 예상. 4분기 KOSPI 박스권 예상. 실적/경기 모멘텀과 유가, 금리, 달러 상승 압력 간의 힘겨루기

8월말 ~ 9월초까지 **기존 주도주(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전력기기, 방산 등) 비중을 유지/확대**하는 가운데 저평가/소외주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 유효(인터넷, 제약/바이오, 내수주, KOSDAQ). 9월 이후 선행 EPS 모멘텀 정점 통과 확인시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여가면서 **소외주 중심의 순환매 대응과 인플레이션 헤지가 가능한 원유, 천연가스 ETF 매집 전략 유효**

2차 간부 회동 기대감이 불 지핀 시 랠리, 주도주 쏠림 지속

- 코스피 내 쏠림 현상 지속, 사상 최고치 경신하며 8,500선 근접
- 2차 간부 회동 기대감에 피지컬 AI, 소프트웨어 급등
- 주도주 랠리에 코스닥 소외, 업종 전반적으로 약세

코스피 내 쏠림 현상 지속, 사상 최고치 경신하며 8,500선 근접

코스피 내 주도주 쏠림 현상 지속.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며 8,476포인트로 마감했지만, 상승 종목 210개(상한가 4, 상승 206), 보합 28개, 하락 688개로 지수 상승은 일부 주도주에 의존

한편, 전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14.9%에서 20.8%로 확대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급 이탈 우려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 이러한 상황 속 기관과 금융투자의 수급이 주도주로 집중되며 반도체 및 IT 하드웨어 강세 전개

반도체/IT하드웨어: 삼성전자(+5.8%), 삼성전기(+15.0%), LG이노텍(+28.6%)

2차 간부 회동 기대감에 피지컬 AI, 소프트웨어 급등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다음 주 대만 GTC 타이베이 2026 참석 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NAVER 이해진 의장과 의 만남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이 부각
젠슨 황 CEO는 지난 10월 APEC CEO 서밋 참석차 방한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과의 '간부 회동'을 진행한 바 있음. 이후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이익 전망 상향으로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한 피지컬 AI 모멘텀으로 급등세를 시현

이에 투자자들은 LG, 현대차, NAVER 등이 2차 간부 회동을 계기로 피지컬 AI 및 플랫폼 모멘텀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경향

피지컬 AI: LG전자(+29.9%), LG씨엔에스(+29.9%), 현대오트모에버(+24.8%)

소프트웨어: 삼성SDS(+20.3%), NAVER(+14.2%)

주도주 랠리에 코스닥 소외, 업종 전반적으로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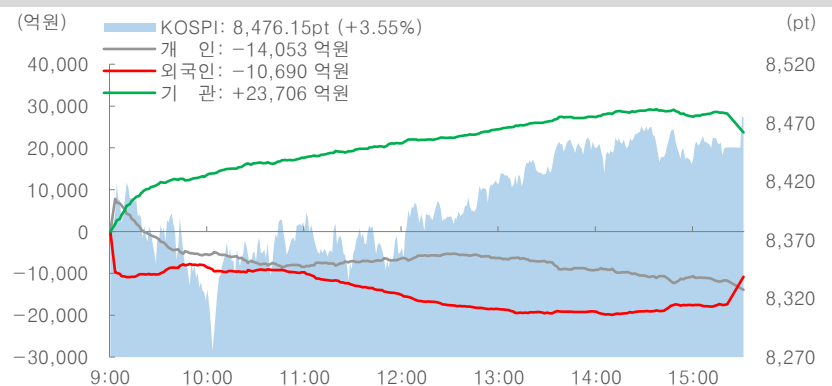
코스닥은 코스피 주도주 쏠림 현상과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업종 전반적 약세

반도체 소부장: 주성엔지니어링(-3.9%), 이오테크닉스(-5.5%), ISC(-4.9%)

제약/바이오: 디앤디파마텍(-12.0%), 코오롱티슈진(-4.5%), 펩트론(-5.9%)

스페이스X: 미래에셋벤처투자(-8.1%), 아주B투자(-11.4%), 스피어(-7.2%)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현대해상 (001450)

박혜진

권용수RA

hyejin.park@daishin.com

yongsukwon@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8,000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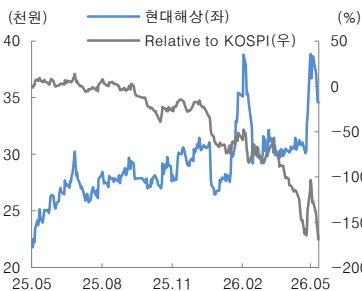
현재주가
(26.05.29)

34,550

보험업종

KOSPI	8,476.15
시가총액	2,94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5%
자본금(보통주)	3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8,850원 / 23,9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95억원
외국인지분율	39.16%
주요주주	정몽윤 외 6 인 23.97% 국민연금공단 9.86%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9.9	0.6	15.0	37.4
상대수익률	-13.3	-25.9	-46.7	-55.9



도수치료 제한, 가장 큰 수혜

-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포함되면서 위험손해를 1.5%p하락 가능할 전망
-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제한 관련 업계 전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재료
- 실적발표 이후 상승분을 거의 반납한 추가, 모멘텀 존재하여 주목할 필요

7월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포함, 동사 가장 수혜 전망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에 포함되어 회당 치료비가 4만원대로 낮아진다. 연간 횟수도 제한되는데, 경상환자의 경우 15회까지만 받을 수 있다. '25년 기준 도수치료 중간가격이 10만원, 평균은 135,000원임을 고려하면 50% 이상 하락하는 것이다. 이미 일부 정형외과에서는 재활치료사의 공급 자체를 감소시키는 움직임도 보인다.

'25년 기준 동사의 예실차 손실은 3,061억원, 손실계약비용이 3,806억원을 감안하면 총 손실액 가운데 실손보험 비중이 90%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회당 치료비 자체가 워낙 낮아지기 때문에 전술한 제도 시행으로 우리는 동사의 예실차 및 손실계약비용이 연간 40% 이상, 2,4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손해를 1.5%p 하락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커버리지 보험사 중 위험보험료 내 실손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동사가 받는 수혜가 가장 클 것이다. 동 효과는 '26년 3분기 예실차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체외총격파 및 언어치료도 논의중에 있어 관리급여에 포함될 경우 손해를 하락폭은 더욱 클 것이다.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6월 법령 입법예고

향후치료비는 보험사가 치료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 성격이다. 경상자수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치료비는 오히려 증가하여 모럴해저드 이슈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경상자의 경우 8주이상 장기치료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6월에 법령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다만 한방병원 및 소비자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당초 발표한 시기에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부에서 입법하였기 때문에 국무회의 상정만 되면 당장 시행이 가능하다. '25년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1.68조원으로 동 제도가 시행된다면 업계 전체적으로 40%의 비용이 절감, 손해를 1.7%p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8,000원 유지

전 세대에 걸쳐 동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분기 어린이 실손에서 호흡기질환 청구액 300억원 발생했음에도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이 0.9%p 하락했다. 따라서 전술한 관리급여가 시행될 경우 동사의 손해를 하락폭은 더욱 가팔라 질 것으로 예상된다. K-ICS비율을 비롯해 듀레이션갭, 그리고 CSM배수까지 전 부문에 걸친 핵심지표가 1분기 완성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배당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 존재하나 하반기 질적개선이 가능한 모멘텀이 풍부하다. 주가는 실적발표 이후 20% 가까이 급등하였으나 최근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였다. 따라서 Valuation이나 모멘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LS (006260)

허민호

minho.hur@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630,000

유지

현재주가

(26.05.29)

446,000

유틸리티업종

실적 성장 본격화 & 주가 급락은 저가 매수 기회

-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630,000원 유지. 최근 주가 급락은 과도
- LS ELECTRIC의 높은 밸류에이션 정당화: 미국 FPS 사례로 확인 가능
- LS전선 기업가치 재평가: 고마진 전력케이블/부스웨이 매출 성장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630,000원 유지. 최근 주가 급락은 과도

목표주가 630,000원(목표주가는 적정 NAV 40.7조원 대비 52% 할인, 현재 NAV 대비 26%) 유지. 5월 27일 지주회사인 (주)LS는 자회사의 LS ELECTRIC 관련 수주금액 기재정정 해프닝이 발생함. LS ELECTRIC의 자회사(LS의 손자 회사) 수주금액을 크게 낮추었음. 실제 LS ELECTRIC이 직접 공시한 수주금액은 올바로 공시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주)LS의 공시 실수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펀더멘털은 변함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른 전력기기, 전선업체 주가 하락 대비 급락이 큰 점은 과도하다고 판단

적정 기업가치 19,65조원 중 주요 자회사의 비중은 LS ELECTRIC 36%, LS전선 35%, LS M&M 13%, LS아이앤디 6% 등임. 전력인프라 관련 자회사로 구조적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LS ELECTRIC, LS전선, LS아이앤디의 기업가치 상승이 (주)LS의 주가의 주요 요소임(LS M&M은 전기동 제련 사업 업황 및 부산물 가격 등에 실적 변동성이 심함)

LS ELECTRIC의 높은 밸류에이션 정당화: 미국 FPS 사례로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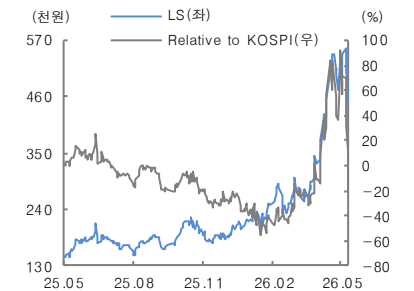
최근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했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으로의 수급 쏠림, 4월 이후 주가 급등 부담, 국내 전력기기 업체의 글로벌 Peer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5월 들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GEV(2028년 가스터빈 생산능력 증설 효과 이전 2027년까지 가스터빈 부문 매출 성장 속도 둔화 우려 등)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글로벌 전력기기 업체는 견조한 주가 상승 지속 중. 특히, 중소 배전기기 업체인 FPS는 2026F(캘린더 기준) PER 65배(6월 회계결산 법인으로, 결산 기준 3Q26 ~ 2Q27F 실적을 합산)의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5월 들어 주가가 45% 상승했음. AI 데이터센터 내부의 맞춤형 배전설비의 직접적 수혜, 짧은 리드타임으로 즉각적인 시장 수요 흡수 등으로 높은 실적 성장 지속이 기대되기 때문임. LS ELECTRIC도 FPS와 유사한 비즈니스 구조를 기반으로 중장기 실적 성장 본격화 예상. 향후 높은 밸류에이션 정당화 등으로 주가 상승 기대

LS전선 기업가치 재평가: 고마진 전력케이블/부스웨이 매출 성장 본격화

국내 전력선 업체들의 주가도 급락. 원인은 전력기기 업체들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 한편, 글로벌 전력선 업체들은 견조한 주가 상승세 지속. LS전선은 2026년 외형성장 및 수익성 개선 본격화, 기업가치 확대 예상. 2024년 이후 구리가격 상승과 함께 선별적으로 수주한 지중/해저케이블을 매출로 인식, AI 데이터센터용 부스웨이 매출 급증 등 고마진 제품 매출확대 예상. 4Q26 유럽형 HVDC 해저케이블 매출 인식 본격화 등. 북미형 지중케이블 및 AI데이터센터 부스웨이, 해저케이블(국내 서해안 HVDC, 유럽 해상풍력 연계 HVDC, 북미 전력망 연결 등) 수주 확대. LS전선의 매출액 2026년 8.46조원(+12.2% YoY)에서 2028년 10.23조원('25~'28년 3개년 CAGR +10.7%)으로 증가, 영업이익률은 2026년 5.3%(+1.6%p YoY)에서 2028년 6.4%로 개선 전망

KOSPI	8476.15
시가총액	13,91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6%
자본금(보통주)	15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553,000원 / 150,8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690억원
외국인지분율	18.27%
주요주주	구지열 외 44 인 33.11% 국민연금공단 12.7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6.6	56.8	149.3	176.7
상대수익률	-15.9	15.5	15.5	-11.2



대신 신성장산업

박장욱
한송현
김아영
김진형

jangwook.park@daishin.com
songhyeop.han@daishin.com
ahyoung.kim@daishin.com
jinhyung.kim@daishin.com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브이엠	Buy	80,000원
하이록코리아	Not Rated	Not Rated
인텔리안테크	Not Rated	Not Rated

6월 Top-Picks: 브이엠, 하이록코리아, 인텔리안테크

- [브이엠] 실적은 역대 최고, 주가는 여전히 저렴한 구간
- [하이록코리아] 재편되는 에너지 지도에서 기대되는 수혜주
- [인텔리안테크] 스페이스X 다음 투자 포인트는 지상국과 안테나

[브이엠] 실적은 역대 최고, 주가는 여전히 저렴한 구간

주요 고객사(SK하이닉스)의 DRAM 투자 확대 및 용인 Fab 준공 일정 가속화로 장비 발주 사이클이 지속될 전망

Leo WS 신규 장비 출시·공정 점유율 확대(25년 10%→28년 20%)·북미 신규 고객사 개척 등 단위 투자당 매출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하이록코리아] 재편되는 에너지 지도에서 기대되는 수혜주

호르무즈 사태로 LNG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피격된 카타르 LNG 터미널 복구에 2.5~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FLNG·중형 모듈러 LNG 중심의 설비 투자 확대가 하이록코리아의 해양 부문 수혜로 이어질 전망

[인텔리안테크] 스페이스X 다음 투자 포인트는 지상국과 안테나

LEO 위성은 구조적으로 많은 수의 위성, 지상국이 필요해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게이트웨이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 대부분의 게이트웨이 공급망에 진입한 인텔리안테크의 최대 수혜 예상

기존 VSAT 사업은 LEO 전환 초기 영향으로 2024년까지 수요가 일부 위축됐지만,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서비스 확산과 교체 수요로 회복 흐름

실적 전망

(단위: 십억원, %, 배)

	브이엠		하이록코리아		인텔리안테크	
	26F	27F	26F	27F	26F	27F
시가총액	1,459		420		1,429	
매출액	296	375	241	266	403	502
%yoy	105.6	26.7	12.1	10.4	25.9	24.6
영업이익	88	125	67	73	39	60
OPM(%)	29.7	33.3	27.8	27.4	9.7	12.0
순이익	75	102	57	62	31	49
ROE	34.9	33.9	12.0	12.0	10.5	13.8
PBR	5.5	3.9	0.9	0.8	5.8	5.1
PER	18.4	13.4	7.8	7.1	59.0	38.2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